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LNG선 1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약 1.86억달러이며 인도기한은 2023년 7월 까지라고 공시됨. 삼성중공업은 11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조원(29억달러규모)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Clarksons reveals 27% of orderbook to use alternative fuels

Clarksons에 따르면 전세계 수주잔고 중 1/4 이상이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보도됨. LNG와 LPG는 zero-carbon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중요한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Petrobras and Taihua sell tankers for scrapping as demolition market remains bullish

최근 탱커선주들이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Petrobras(브라질)은 15.3만DWT급 탱커를 887만달러에 팔았으며 이는 scrap 가격 기준으로 ldt당 388달러라고 보도됨. Taihua(중국)의 13,800DWT급 탱커는 스테인리스강 소재 덕에 ldt당 760달러의 scrap 가격으로 매각됐다고 보도됨. (TradeWinds)

Golden Energy inks another MR tanker at STX Offshore

STX조선해양이 Golden Energy Management로부터 50,000DWT급 MR탱커를 추가 수주했다고 보도됨. 동일 발주처로부터 4척의 MR탱커를 수주했으며 첫번째 선박은 2021년 11월에 인도 예정으로 알려짐. 척 당 선가는 3,650만달러 미만으로 알려짐. (TradeWinds)

한-일, 한 목소리

EU가 항공기 배출가스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시행 대상에 선박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한국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EU는 EU 항만 발, 또는 EU 항만 간에 운항되는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한국·일본은 글로벌 규제 시스템이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한국서부발전과 라오스 수력발전 공동개발

두산중공업은 한국서부발전과 라오스 푸노이(Phou Ngoy) 수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푸노이 수력발전소는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팍세시에 728MW 규모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약 24억달러 규모라고 보도됨. 2022년 건설을 시작해 2029년 완공할 예정으로 알려짐. (파이낸셜뉴스)